

『구운몽』과 『서유기』의 비교연구

최유학*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2. 『서유기』의 한국내 수용
3. 『구운몽』과 『서유기』의 유사성 비교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비교문학의 방법론으로 『구운몽』과 『서유기』의 유사성을 화소, 인물, 지명과 숫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두 작품의 영향관계도 함께 따져보고자 한다.

오승은(1500~1582)과 김만중(1637~1692)은 모두 환상적인 꿈세계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두 소설에 나오는 꿈들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 중 수용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표가 바로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서유기』에서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는 夢斬涇河龍의 이야기가 간단하게나마 『구운몽』에서 언급된 점은 김만중이 『서유기』의 관련 화소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은 神仙四散 화소와 환생 화소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서사구조상에서 모두 환상여행이라는 여로형 소설의 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작품은 장원급제 화소와 부부결연 화소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두 작품은 불로장생 화소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두 소설에 나오는 주

* 중앙민족대학교 부교수,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인공은 모두 불로장생을 지향하고 있으며 많은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등장하며 불로장생에 관한 논리들을 불교와 도교 또는 유교의 관점으로 펴고 있다. 두 작품의 작중인물을 살펴보면 인물성격, 경력 등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두 작품에는 일부 같거나 비슷한 지명이 두 소설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일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운몽』과 『서유기』는 동일한 한자문화권이라는 배경 하에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유사성은 『구운몽』의 『서유기』에 대한 수용양상으로 나타난다.

핵심어: 구운몽, 서유기, 유사성, 비교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김만중의 『구운몽』은 한국소설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으로 하여 외국문학작품과의 비교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중국의 고전신화소설인 『서유기』와의 비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비교연구를 통해 『구운몽』의 문학적 가치가 검증되고 평가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가원은 『구운몽』 52회의 儒, 佛, 仙 三敎의 論은 곧 서유기 86회의 儒, 佛, 仙 三敎의 論이라면서 서유기가 “본서에 끼친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구운몽을 읽으려면 반드시 西遊記를 읽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¹⁾ 현창하는 『서유기』의 용왕 聽經 이야기와 擇婿 이야기 및 삼교혼합에 불교주류사상, 작품의 분위기 등이 『구운몽』과 관련된다고 했다.²⁾ 이재수는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과거에 급제한 후 재상이 정사도가 그를 여서로 채택하는 것은 서유기에서 진광예가 급제한 후 재상인 은개산

1) 이가원, 「구운몽평고」, 『구운몽』, 덕기출판사, 1955, 35면.

2) 현창하, 「구운몽연구」, 『현대문학』 8월 5호, 현대문학사, 1962, 175~197면.

이 그를 사위로 拔擢하는 것과 유사한 바 있다고 하였다.³⁾ 정규복은 이상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정리하여 『서유기』의 이중구조, 환생이야기, 乘風騰空 이야기 등이 『구운몽』과 관련됨을 밝혔다.⁴⁾ 전성운은 『구운몽』창작의 소재적 원천을 각 인물형상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서유기』의 택서 이야기는 그 관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⁵⁾ 이상익은 정규복과 이재수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주제와 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운몽』과 『서유기』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구성이라는 측면을 이중구조, 환생, 騰空, 聽經, 擇婿로 나누어 설명하였다.⁶⁾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규복의 일부 연구 외에 대부분의 연구는 『구운몽』과 『서유기』의 연관성 또는 유사성을 단편적으로만 언급하고 있거나 타인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정규복의 연구는 『구운몽』을 『서유기』와 비교하여 “삼교합합·불교주류론”, “승풍등공설화”, “용왕청경설화”, “석교설화”, “택서설화”, “환생설화”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 그 유사성을 추출하고 그 영향을 고구하였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설화의 고찰에 있어 고찰대상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한계가 있으며 그 밖의 유사성이나 수용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리고 『구운몽』의 저자인 김만중이 『서유기』를 읽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운몽』의 『서유기』 유사성이 주제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구운몽』과 『서유기』의 유사성을 화소, 인물, 지명과 숫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수용가설

3)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1969.

4) 정규복, 「幻夢說話考」,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_____, 「구운몽의 비교문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6, 1970, 25면.

_____, 「서유기와 한국고소설」,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_____, 『구운몽연구』, 고려대출판부, 1974.

_____,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출판부, 1987.

_____,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국학자료원, 2001.

5) 전성운, 「비교 문학적 측면에서의 “구운몽” 창작과 소설사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1.

6) 이상익, 「충격과 조화: 한중소설의 비교연구(기4) - 서유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2.

을 수용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세밀한 분류를 하고자 한다. 다양한 층위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구운몽』과 『서유기』의 유사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것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을 보충함으로써 『구운몽』과 『서유기』의 유사성을 보다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구운몽』과 『서유기』의 유사성을 바로 영향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일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유사성 위주로 살펴볼 것이며 수용은 극히 지엽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텍스트는 을사본이 판각이 되어 널리 읽혔으므로 서울대 정병설 교수님 소장본인 을사본 『구운몽』⁷⁾과 중국 明代 만력 20년 금릉 세덕당 刊本인 『서유기』(세덕당본)⁸⁾를 대상으로 한다.

2. 『서유기』의 한국내 수용

『서유기』는 민간에 장기간 유전되던 고사를 기초로 하여 문인들이 첨삭과 윤식을 가하여 이루어진 소설로, 가공기간만도 약 70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일단락된 소설이다.⁹⁾ 『서유기』는 중국 4대기서¹⁰⁾와 중국 4대명작¹¹⁾에 모두 속해 있는 소설로, 오승은(1500~1582)의 100회본 『서유기』 초간본(1592년 경)이 나온 후는 물론, 그 전에도 관련 고사들이 한국에 전해져 있었다. 오승은이 저술한 『서유기』 이전에 존재했던 『고본서유기』가 한국에 전래된 증거로는 『박통사언해』¹²⁾와 李穡(1328~1396)의 『牧隱詩藁』 제4권

7) 김만중 저, 정병설 소장, 『구운몽』, 1687.

연구의 편의상 이 글에서는 이 책의 총 189쪽으로 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사용하기로 한다.

8) 오승은, 『서유기』(세덕당본)영인본, 『고본소설집성』편집위원회 편, 『고본소설집성』, 상해고적출판사, 1990.

9) 민관동, 『중국 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아세아문화사, 2007, 220면.

10) 중국 明代 문학의 특기할 만한 분야인 소설 장르에서 이루어진 4편의 장편 演義小說을 이르는 말. 『三國志演義』·『水滸傳』·『서유기』·『金瓶梅』를 지칭한다.

11) 『삼국지연의』와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은 중국 고전소설의 4대명작으로 불린다.

12) 『박통사언해』는 刊記가 없으나 李聘命의 서문과 內賜記로 미루어 1677년(숙종 3)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박통사』는 고려말인 1347~1348년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의 시 「赤猴行」¹³⁾을 들 수 있다. 오승은의 100회본 『서유기』가 한국에 전래된 근거로는 조선중기 문인 허균(1569~1618)의 『惺所覆瓿稿』권13 「西游錄跋」¹⁴⁾, 李敏求(1589~1670)의 『東州先生文集』권1 「答吳三宰論選西垆集簡約兼示覆瓿稿書」¹⁵⁾를 들 수 있다. 오승은의 100회본 『서유기』를 김만중이 직접 언급한 기록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김만중의 동시대 인물인 沈粹(1624~1693)가 『송천필담』에서 『서유기』의 문장체와 내용에 대하여 극찬을 한 기록이 있고¹⁶⁾ 李宜顯(1669~1745)의 『陶谷集』권27, 「雲陽漫錄 五十八則」에 『서유기』의 기발한 구상과 수사법을 칭찬하고 명나라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한 기록¹⁷⁾으로 보아 동시대의 소설가 김만중이 직접

는 『고본서유기』가 그때 이미 한국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관동, 앞의 책, 222면.

13) 李穡, 『牧隱詩藁』 권4, 「赤猴行」(한국고전종합DB의 한국문집총간과 고전번역총서의 수록 내용을 인용하였음. 밑줄은 인용자가 추가하였음.)

“금려와 영서는 웅천에서 성장하여 / 黔驢永風生瓮天,
자연스레 길이 울고 멧대로 달리었네 / 長鳴恣走如自然.
공작이 소빨에 반힐 줄도 몰랐었는데 / 不知牛角抵孔雀,
더구나 저 맹호가 짐을 줄줄 흘림에라 / 況彼猛虎垂饑涎.
기어다니는 적후는 여의봉을 놀리어 / 婆娑赤猴弄如意,
하늘 위의 여러 신선들을 경도시켰으나 / 驚倒天上諸神仙.
상제는 노하지 않고 되레 옳게 여겼으니 / 上帝不怒反謂是,
작은 기에도 하늘에 통할 줄 누가 믿으랴 / 誰信小技猶通玄.
금계 한 소리에 아침 햇살이 돌아 오르니 / 金鷄一聲扶桑暎,
하늘땅이 평온하고 풍경은 곱기도 해라 / 乾清坤夷風景妍.
내 옛날 상제 곁에서 천장을 나눠 얻고는 / 帝傍我昔分天章,
봉황을 타고 장차 높이 날려 하였으나 / 翳以鳳凰將高鶩.
전쟁 먼지가 해 가리고 운기가 비리어서 / 干戈蔽日雲氣腥,
돌아와 노룡과 함께 깊은 못에 숨었노라니 / 歸與老龍蟠九淵.
산속의 요괴들은 스스로 멀리 피하건만 / 山中魍魎自遠避,
북두 사이엔 백기가 항상 얽히어 있구나 / 斗間白氣常纏綿.”

14) 허균, 『惺所覆瓿稿』권13, 「西游錄跋」, “有西游記, 云出於宗藩. 卽, 玄奘取經而衍之者. 其事蓋略見於釋譜及神僧, 傳在疑信之間, 而今其書特假修煉之旨. 如, 猴王坐禪, 卽煉己也. 老祖宮偷丹, 卽吞黍珠也. 大鬧天宮, 卽煉念也. 侍師西行, 卽搬運何車也. 火炎山紅孩, 卽火候也. 黑水通天河, 卽退符候也. 至西而東還, 卽西虎交東龍也. 一日而回西天十萬路, 卽攢簇周天數於一時也. 雖離支漫衍, 其辭不爲莊語, 種種皆假丹訣而立言也. 固不可廢哉. 余時存之, 修眞之暇, 倦則以攻睡魔焉.”

15) 李敏求, 『東州先生文集』권1, 「答吳三宰論選西垆集簡約兼示覆瓿稿書」, “其他雜者記傳, 又皆用丹經. 列仙傳, 水滸志, 西遊記等外書, 荒辭誕語, 剽竊傳會.”

16) 민관동, 앞의 책, 220~227면.

17) 李宜顯, 『陶谷集』권27, 「雲陽漫錄 五十八則」, “稗官小說, 自漢唐以來代有之. 如搜神記等書, 語多荒怪, 而文頗雅馴. 其他諸種, 間亦有實事可以補史家之闕遺, 備詞場之採掇者. 至如水滸

읽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한 문으로 번역했다는 김춘택(1670~1717)이 『북헌집』권16 「論詩文」에 남긴 『서유기』에 대한 평가¹⁸⁾를 참조한다면 『서유기』가 김만중 시대에 이미 조선에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¹⁹⁾ 특히 김춘택의 『북헌집』권16 「서포 유사 별록」의 기록에서 서포가 패설을 박람하였다고 증언²⁰⁾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서포가 『서유기』를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유기』가 중국의 세간에 크게 환영을 받은 것은 명 만력연간에 오승은의 100회본 『서유기』가 나온 후로 대략 1592년경이다. 그리고 조선의 허균이 『서유기』를 논평할 때가 1500년대 후기나 1600년대 초기로 가늠되며 이 시기에 들어온 판본이 오승은의 100회본 『서유기』로 보여진다.²¹⁾ 그러므로 조선에서 유통된 『서유기』의 판본이 많겠지만 본고에서는 오승은의 100회본 『서유기』를 논의의 대상으로 택하기로 하였다.

3. 『구운몽』과 『서유기』의 유사성 비교

3.1. 화소

傳, 西遊記之屬, 雖用意新巧, 命辭瑰奇, 別是一種文字. 非上所稱諸書之例也. 而明人劇賞之, 加以俗尚輕浮佚蕩, 輒贗作一副說話, 以售於世, 大抵皆演成史傳與男女交歡事也.”

- 18) 김춘택, 『북헌집』권16, 「論詩文」, “小說, 無論廣記之雅麗, 西遊水滸之奇變宏博, 如平山冷燕, 又何等風致. 然終於無益而已. 西浦頗多以俗諺爲小說. 其中所謂南征記者, 有非等閒之比. 余故翻以文字, 而其引辭曰, 言語文字以教人.”

일부 기존 연구자들은 김춘택이 『북헌집』권16 「囚海錄」 「詩文」에 남긴 『서유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서포가 『서유기』를 읽었다는 증언으로 삼는데 이것은 오류라고 생각된다. 이 평론문은 김춘택의 소설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지 서포에 대한 해설이 아닌 것이다. 즉 “小說, 無論廣記之雅麗, 西遊水滸之奇變宏博.”의 주어는 서포가 아니라 소설에 대한 김춘택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만 떼어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그 뒤의 문맥 즉 “如平山冷燕, 又何等風致. 然終於無益而已.”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소설은 광기의 아름다움이나 서유수호의 기이함과 굉장함이나 평산냉요의 풍치를 막론하고 결국은 무익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해해야지 이를 “서포는 서유수호의 기이함에 대해서도 굉장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 19) 민관동, 앞의 책, 220~227면.

- 20) 김춘택, 『북헌집』권16, 「서포유사 별록」, “至於論文說詩, 繼以諧談稗說, 無不備具. 而率多發前人之所未發者. 其文又淋漓馳驟, 或瑰奇幽妙. 自蒙陋者讀之, 殆茫然不省驚怪疾走之不暇.”

- 21) 민관동, 앞의 책, 223면.

3.1.1. 꿈 관련 설화

오승은과 김만중은 모두 환상적인 꿈세계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오승은은 과거에 누차 실패한 불운아였고 김만중은 과거에 급제한 행운아였지만 만년에 이르러 두 작가는 모두 불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불운한 처지에서 그들은 개인의 감정을 소설 창작에 몰입하였으며 특히 꿈이라는 장치를 능란하게 사용하여 작품의 재미를 더하였다. 동방문화에 기반하고 한자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 두 소설에 나오는 꿈들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 중 수용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표가 바로 꿈과 관련된 설화이다.

『서유기』에서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는 夢斬涇河龍의 이야기가 간단하게나마 『구운몽』에서 언급된 점은 김만중이 그 중의 화소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김만중이 『고본서유기』거나 『서유기』 관련 고사 또는 100회본 『서유기』를 읽었거나 접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100회본 『서유기』가 김만중의 동시대 조선 문인들에게 읽혔음을 감안한다면 김만중도 100회본 『서유기』를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魏徵(580~643)은 당나라 태종 때 중용된 재상으로 그가 涇河 용왕의 목을 베었다는 고사가 『영락대전』, 『서유기』 등에 전해지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모두 넓은 의미로 『서유기』 관련 고사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할 부분은 『구운몽』에 나오는 『서유기』의 몽참경하룡의 내용과 연관되는 대목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서유기』에서 위징 승상이 涇河龍을 참할 때 쓰던 보검을 『구운몽』의 양소유가 남해태자와 싸울 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검으로 인해 『서유기』와 『구운몽』은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등 면에서 서로 선후관계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서유기』에서는 남해용왕 敖欽이 등장한다면 『구운몽』에는 남해용왕이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敖賢²²⁾이 등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역시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면에서 선후관계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2) 노존본에는 ‘敖賢’으로 되어있다. 그 밖에 을사본, 환화록에는 모두 五賢으로 나온다. 『서유기』의 남해용왕의 이름은 敖欽이다.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은 敖賢이 맞다.

楊元帥與龍女同坐, 摔入南海太子, 厲聲責之曰 :

“我奉行天討, 征伐四夷, 百鬼千神, 莫不從命, 汝小兒, 不知天命, 敢抗大軍, 是自促鱗鯢之誅也. 我有一介寶劍, 卽魏徵丞相斬涇河龍王之利器也. 當斬汝頭, 以壯軍威, 而汝鎮定南海, 博施雨澤, 有功於萬民, 是以赦之. 自今勉悛舊惡, 幸勿得罪於娘子也.”

(양원수가 용녀와 더불어 앉아 남해 태자를 잡아들여 소리 높여 꾸짖되, “내 천명을 받들어 사이를 정벌하매 모든 귀신과 신령이 내 명을 따르지 않는 자 없거늘, 네 어린 아이가 천명을 알지 못하고 감히 대군을 항거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라. 나에게 보검이 한 자루 있는데 이 보검은 바로 위징 승상이 경하 용왕을 베던利器라, 마땅히 네 머리를 베어 군사의 위엄을 떨칠 것이로되 네가 남해를 진정하고 비를 널리 내려 만민에게 공이 있으므로 너를 용서하노니 지금부터 舊惡을 고쳐 남자에게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구운몽 하: 5b)²³⁾

이 두 소설의 꿈 관련 설화들의 공동특징으로 우선 꿈의 현실동일화를 들 수 있다.

『구운몽』에서 백능과를 만나고 남해태자와 싸우는 장면은 꿈으로 되어 있으며 꿈에서 겪은 일들의 결과물들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꿈에서 남해태자 및 그 병사들과 싸웠는데 꿈을 깨 백룡담 호수 가에 가보니 고기비늘이 가득 떨어져 있었다. 이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유명계로 끌려가는 꿈과 당태종이 경하용왕을 만나는 꿈, 위징이 경하용왕을 베는 꿈 등이 바로 현실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현실로 이어지는 것과 흡사하다.

손오공이 저승사자에 끌려 유명계에 갔다가 오는 꿈의 경우 그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고 꿈을 깨는 즉시 바로 현실과 이어진다. 손오공이 꿈에 생사부의 이름을 지워버림으로써 손오공과 그의 많은 원승이족속들은 장생불로하게 된다. 『서유기』의 경우 위징이 경하용왕을 꿈에서 참했는데 용머리가 바로 현실의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래는 위징이 꿈에서 참한 용머리가 장안에 떨어졌는데 당나라 장수가 그것을 주워서 당태종에게 가져다 보여

23) 번역문은 필자가 번역하여 병기하였다.

주는 『서유기』의 장면이다.

只聽得朝門外大呼小叫。原來是秦叔寶、徐茂功等，將著一個血淋的龍頭，擲在帝前，啓奏道：“陛下，海淺河枯曾有見，這般異事卻無聞。”太宗與魏征起身道：“此物何來？”叔寶、茂功道：“千步廊南，十字街頭，雲端裏落下這顆龍頭，微臣不敢不奏。”唐王驚問魏征：“此是何說？”魏征轉身叩頭道：“是臣才一夢斬的。”²⁴⁾

(갑자기 궁궐 문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진숙보와 서무공이 선 지피가 툭툭 떨어지는 용의 머리를 하나 들고 들어와서 태종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아뢰었다. “폐하! 바다물이 얕아지고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본 적은 있었 사오나, 이런 괴변은 들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태종과 위징이 벌떡 일어났다.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진숙보와 서무공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천 보랑 남쪽 네 갈래 길에서였습니다. 갑자기 구름 속에서 이 용의 머리가 툭 떨어져 내렸다 하오나, 소신들이 폐하께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태종은 깜짝 놀라 위징을 돌아보고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위징은 몸을 돌려 땅바닥에 무릎 꿇고 이마를 조아렸다. “이 용의 머리는 소신이 방금 꿈속에서 뱀 것입니다.”) (『서유기』 제10회)²⁵⁾

이 두 소설들의 꿈 관련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동일한 꿈을 여러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꿈을 꾸며 그 꿈으로 인해 사건해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꿈들도 바로 현실과 이어지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운몽』은 현실과 꿈, 그리고 현실과 현실 너머의 세계가 중층적 구조를 이루는 독특한 작품으로서 꿈속에 다시 꿈을 꾸게 하여 꿈 이전의 현실로 돌아가게 한 설정까지 두고 있다.²⁶⁾ 『구운몽』에서 백능파를 만

24) 오승은, 『서유기』(세덕당본) 1(영인본), 『고본소설집성』편집위원회 편, 『고본소설집성』, 상해고적출판사, 1990, 215면.

25) 오승은 저, 임흥빈 역, 『서유기』제1권, 문학과지성사, 2003, 339~340면. 본고에서는 편의상 임흥빈 번역본의 국문을 함께 병기하기로 하였다.

26) 정병설, 『구운몽도』, 문학동네, 2010, 155면.

나는 장면은 성진의 꿈속의 양소유가 다시 꿈을 꾸다는 전형적인 몽중몽의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꿈에서 깨어난 후 양소유가 좌우의 부하 장수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꿈을 꾸었는가를 묻고 부하들이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대답하는 장면이다. 꿈을 깬 후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 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었다. 동일한 꿈을 꾸 여러 명이 그 꿈이 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졌음을 서로 확인한 셈이었다.

『서유기』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처럼 몽중몽의 구조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일한 꿈을 꾸는 장면과는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동일한 꿈을 꾸게 하며 그것을 현실과 이어주는 것은 꿈을 그만큼 신비화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구운몽』에서 양소유와 부하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확인하는 것처럼 『서유기』에서도 제13회의 백흠 일가족이 동일한 꿈을 꾸고 서로 확인한다. 『서유기』 제13회에서 백흠의 아내가 백흠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백흠이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대답을 하고, 백흠의 어머니가 백흠 부부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백흠 부부가 듣고 자기들도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대답하면서 서로 동일한 꿈을 꾸었음을 재확인한다. 『서유기』에서 이와 비슷한 꿈 이야기로는 제37회 삼장법사가 오계국 국왕이 찾아오는 꿈을 꾸는 장면, 제97회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꿈은 아니지만 손오공이 변신술을 이용하여 죽은 구원외의 영혼이 구씨 일가와 자사에게 말하듯이 꾸며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 등이 있다. 오계국 국왕의 꿈이 조금 다른 점이라면 오계국 국왕이 삼장법사에게 탁몽한 후 또 야유신의 도움을 받아 왕후에게 탁몽하는 것으로 꿈을 꾸는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 아니며 꿈 내용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꿈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작품에 나오는 꿈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꿈을 깬 때는 발을 헛딛거나 넘어질 뻔하거나 넘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환생 시에 뒤에서 누가 떠밀어 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손오공이 꿈을 깨는 장면, 당태종이 환생하는 장면, 양소유가 환생하는 장면, 양소유가 꿈을 깨는 장면은 이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구운몽』이 현실과 꿈이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이므로 꿈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환생 및 각몽의 장면은 서사구조상 중요한 서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환생 및 각몽의 장면이 『서유기』의 꿈 장면과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두 소설의 작가가 비슷한 서사전략을 구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 『구운몽』과 『서유기』 두 소설에 나타나는 꿈 관련 설화의 유사성은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향관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두 소설 외에도 동양의 다른 소설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운몽』은 엄연히 동양 고전과 동양 한문화의 전통에 기반한 독창적인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3.1.2. 神仙四散설화와 환생설화

서사구조상에서 『구운몽』과 『서유기』는 모두 환상여행이라는 여로형 소설의 서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두 소설 모두 계속 길을 떠나야 하며 한 주인공이 계속 떠나는 과정에 하나씩 만나고 합치게 되는 여로형 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소설은 모두 『수호전』과 닮아 있기도 하다.

두 소설의 이러한 서사구조는 죄를 범한 신선이 인간세상 각지에 흩어졌다가 다시 합치는 神仙四散설화를 공통특징으로 하고 있다. 『구운몽』, 『서유기』에서는 모두 죄를 지은 신선이 각지에 흩어졌다가 합쳐진다.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는 원래 여래의 두 번째 제자인 금신자였는데 설법을 듣지 않아 별을 받아 동토에 전생된다. 작품에서 초기에 그는 取經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人世에 파견된 불자로 설정되어 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백룡마도 모두 천상에서 별을 받아 인간세상으로 쫓겨나 삼장법사를 기다려 합쳐져서 함께 취경을 완수한다. 『구운몽』에서는 죄를 범한 성진과 위부인의 여덟 선녀가 인간세상에 뿌려졌다가 다시 합쳐진다.

이들 중에서도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이 스승으로부터 쫓기는 장면과 저팔계가 선계에서 쫓기는 장면을 합치면 『구운몽』의 성진이 스승으로부터 내쫓기는 장면과 흡사하다. 스승을 떠나기 싫어하는 애뜻한 감정에

도 불구하고 손오공은 변신술을 전수해준 스승으로부터 쫓겨난다. 저팔계는 월궁상아를 희롱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추방당하여 환생하게 된다. 이는 성진이 스승에게 용서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장면과 남악 위부인의 팔선녀와 수작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추방당하여 환생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두 소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생설화들을 살펴볼 때 성진이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장면은 현장이 태어나는 장면, 저팔계가 태어나는 장면, 당태종이 환생(혼)하는 장면 등과 흡사하다. 성진은 뒤에서 밀어서 넘어지며 태어나게 되는데 그 때 “구아구아”(나를 구하라)를 외친다. 당태종은 저승의 망사성에서 귀신에게 잡혔을 때 “최선생구아, 최선생구아”(최선생! 날 구해주시오!)를 외치다가 주태위가 말 위에 탄 당태종을 물속에 밀어뜨려 환혼하게 된다. 이 장면은 두 소설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는 입몽과 각몽이라는 장면으로 특히 각몽에서 더욱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性眞卽入見, 則處士載葛巾穿野服, 坐於中堂, 對爐煎藥, 香臭靄。然襲衣, 房內隱。有婦人呻吟之聲矣。使者促性眞入房中, 性眞疑慮逡巡, 使者自後推擠性眞, 蹶然仆地, 神昏氣窒, 若在天地翻覆之中者然。

性眞大呼曰：“求我! 求我!”

(성진이 즉시 들어가 보니 처사가 갈건야복으로 대청에 앉아 화로에 약을 달이니 향내 가 애애하게 옷에 배어들고 방 안에 은은히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더라. 사자가 재촉하여 방에 들라 하거늘 성진이 마음에 의심하여 머뭇거리니, 사자가 뒤에서 밀치는지라 성진이 땅에 엎어져 정신이 아득하고 숨이 막히며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거늘 “나를 구하라”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

(『구운몽』상: 10-B)

見一伙拖腰折臂、有足无頭的鬼魅，上前攔住，都叫道：“還我命來，還我命來！”慌得那太宗藏藏躲躲，只叫：“崔先生救我，崔先生救我！”……(중략)

那唐王只管貪看，不肯前行，被太尉撮著脚，高呼道：“還不走，等甚！”撲的一聲，望那渭河推下馬去，卻就脫了陰司，徑回陽世。²⁷⁾

27) 오승은 저, 앞의 책, 236~241면.

(앞을 바라보니, 허리를 흉기에 절반쯤 베여 질질 끌고 달려오는 귀신, 팔뚝이 썩듯 잘려나간 귀신, 두 발은 있으되 머리통이 텅텅 날아간 귀신들이 무수하게 떼를 짓고 아우성을 치면서 달려오더니, 태종을 앞을 가로막고 일제히 고향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세민! 내 목숨을 돌려다오! 내 목숨을 물어내란 말이다!” 태종은 허겁지겁 그들의 손길을 이리 빠지고 저리 피해가면서, 정신 없이 소리를 질러댔다. “최선생! 날 구해주시오! 최선생, 어디 있소? 날 좀 구해주시오!”……(중략)……하지만 물고기 구경에 정신이 팔린 태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강물만 바라볼 뿐, 좀처럼 떠날 기색이 아니었다. 주태위가 성질이 낫던지, 태종의 다리를 거머잡고 번쩍 쳐들면서 낚다 고향을 지른다.“이래도 안 갈 테요? 뭘 꾸물거리는 거요!” 뒤이어서 “풍덩!”하는 물보라 소리……태종의 몸뚱이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더니, 그만 강물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리하여 태종은 마침내 저승을 벗어나 이승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서유기』 제10~11회)²⁸⁾

신선사산설화와 환생설화라는 공통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작품이 엄연히 독립적인 별개의 작품이듯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공통점도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어”나 일부 장면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 두 소설에 나타난 신선사산설화나 환생설화와 비슷한 적강설화들이 기타 많은 동양 고전 소설들에서도 나타나므로 이 역시 이 두 작품만의 유사성은 아니다.

3.1.3. 장원급제설화와 부부결연설화

『서유기』에서 현장법사의 아버지(진광예)가 장원급제하는 이야기와 삼장법사의 아버지(진광예)와 어머니(은은교)가 부부인연을 맺는 장면은 양소유가 장원급제하는 이야기와 정경패와 계섬월을 만나 부부인연을 맺는 장면과 흡사하다. 우선 두 남자주인공은 모두 편모슬하라고 할 수 있으며 모두

28) 오승은 저, 임홍빈 역, 『서유기』 제2권, 문학과지성사, 2003, 35~40면.

장원급제하여 재상가의 규수와 혼인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라면 『서유기』의 은은교는 주동적이고 『구운몽』의 정경패는 수동적이라는 점에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부인연을 맺는 장면을 비교할 때 『서유기』에서의 승상의 딸인 은은교가 『구운몽』에서의 재상의 딸인 정경패와 비슷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소설의 유사성으로 정경패와의 인연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인공이 남편을 주동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은은교와 계섬월이 성격적으로 더 큰 유사성을 갖는다고 봐야 마땅하다. 은은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능동적으로 진광예에게 수구를 던져 부부의 인연을 맺으며, 계섬월도 자기 마음에 드는 양소유를 위해 몰래 추파도 보내고 노래를 불러줌으로 양소유를 선택하며 급기야는 떠난 양소유를 따라오기도 하며 아주 능동적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오승은이 『서유기』의 은은교를 재상 집 딸임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서 수구를 던져 혼인대상을 정하게 한데 반해 김만중은 『구운몽』의 정경패를 유교의 예법에 맞는 규수로 정형화하였다. 그러므로 성격적으로는 오히려 『구운몽』의 능동적 인물인 명기 계섬월이 『서유기』에서의 재상의 딸 은은교와 더 큰 유사성을 갖게 된다. 물론 인물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인물의 신분이나 출신배경만 본다면 기존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경패와 은은교가 더 큰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1.4. 불로장생 설화

두 소설의 주인공 인물은 모두 불로장생을 지향하고 있으며 많은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등장하거나 소설에서 그 이름이 거론되며 불로장생에 관한 논리들을 불교와 도교 또는 유교의 관점으로 펴고 있다. 불로장생을 위해 도를 닦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장면에서 두 소설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손오공이 화과산에서 원숭이 부하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연회석상에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不生不滅”의 불, 선, 신성이 되려고 하는 장면은 양소유가 생일잔치의 후속으로 경치 좋

은 봉우리에 올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돌연 옥통소를 슬피 불며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不生不滅之道”인 불도를 닦으려고 하는 장면은 서로 많이 닮아 있으며 “不生不滅”이란 용어를 모두 쓰고 있으며 불교, 도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다른 점이라면 이 부분에서 손오공이 佛, 仙, 神聖을 모두 긍정하고 있다면 양소유는 불도는 긍정하나 그 밖의 유도와 선도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특히 선도를 허망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불로장생 가능성에 대해 『서유기』에서는 불, 선, 신성 즉 불교와 도교의 수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구운몽』에서는 유교는 죽은 후에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명익상의 영생을 도모할 뿐이고, 도교는 허황한 게 많고 불교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소설에서는 다양한 불로장생의 인물들이 등장 또는 거론되는데 『서유기』에는 『구운몽』에 비해 동식물이 수련을 통해 변한 신선 또는 괴물들이 더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 점을 본다면 『서유기』에 비해 『구운몽』은 상대적으로 많이 현실적인 면에 접근해 있는 편이다.

3.2. 작중인물

두 소설의 많은 인물들은 인물형상, 인물성격 또는 경력 등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그 한 가지 예로 손오공의 자기보호의식과 양소유의 자기보호의식을 들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타인의 질투를 의식하고 있는데 손오공은 자기보호의식의 작동으로 남몰래 한밤중에 스승(祖師)을 만나기도 한다. 양소유 또한 타인의 질투를 의식하여 술좌석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위장하여 몰래 계섬월을 만나며, 높은 관직을 사양하고 상으로 주는 땅도 사양하며 물러설 줄 안다.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풍류남아 양소유는 미인을 만나면 그 미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팔계와 닮아 있고, 싸움터에 나가면 무예가 출중하고 겁이 없다는 점에서 손오공과 닮아 있고, 많은 미인들의 사랑을 받는 면에서는 삼장법사와 닮아 있으며, 미인을 위해 잘 울고 정이 많고 자비

심이 깊다는 면에서도 삼장법사와 닮아 있다.

저팔계와 양소유를 비교한다면 두 소설 모두에 “色中餓鬼”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여색에 굶주린 귀신이란 뜻이다. 『구운몽』에서는 양소유를 지칭하여 쓰였고 『서유기』에서는 저팔계가 “승려는 다 색중아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 군자인체 할뿐이라면서 비난할 때 쓰였는데 문맥으로 봐서 저팔계 자신의 솔직한 마음 즉 여색에 대한 지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英陽曰：“相公之見欺於春雲者多矣. 無薪之突煙豈生乎? 但欲見其懼怯之狀矣. 冥頑太甚, 不知惡鬼, 古所謂 好色之人 ‘色中餓鬼’者, 果非誣也. 鬼之餓者, 豈知鬼之可惡乎?” 一座皆大笑. 丞相方知英陽公主之爲鄭小姐也.

(영양이 대답하되, “승상이 춘운에게 속은 일이 많으니 불 아니 뎨 굴뚝에 어찌 연기가 날 수 있겠나이까. 다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였더니 너무 어리석어 악귀를 몰라보니, 옛말에 호색하는 자는 색중아귀라 하였는데 이 옛말이 과연 틀린 말이 아니니 주린 귀신이 어찌 귀신을 미워할줄 알리이까?” 하니 좌중이 모두 크게 웃더라. 이에 승상은 비로소 영양공주가 바로 정씨인 줄 알게 되니.) (『구운몽』(하):41.b, 42.a)

行者道：“(중략)呆子, 妳與這家子做了女婿罷, 只是多拜老孫幾拜, 我不檢舉妳就罷了.” 那呆子道：“胡說, 胡說! 大家都有此心, 獨拿老豬出醜. 常言道: ‘和尚是色中餓鬼.’ 那個不要如此? 都這們扭扭捏捏的拿班兒, 把好事都弄得裂了(중략你們坐著, 等老豬去放放馬來.”²⁹⁾

(그러고는 저팔계를 돌아보고 말을 이었다.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 자네가 이 집 사위 노릇을 하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이 손선생에게 큰절을 툭툭히 해야만 자넨 잡아서 끌고 가지 않겠네. 알아듣겠나?) 바보 멍텅구리가 필쩍 뛰면서 변명을 한다. “당치도 않은 헛소리 작작 하시구려! 우리 모두 그런 영큼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 저팔계한테만 뒤집어씌워서 추태를 부리게 만드는 거요? 속담에 ‘화상은 여색에 굶주린 귀신’이라고 했는데,

29) 오승은 저, 앞의 책, 555~556면.

어느 누구인들 그런 마음이 없겠소? 너나 할 것 없이 뻘한 속셈들을 품고서도 고고한 척 대갈이나 부리다가 좋은 일 몽땅 잡쳐버린 거지! (중략) 이 저팔계가 가 풀밭을 찾아서 말을 놓아먹이고 돌아올테니…….” (『서유기』 23회)³⁰⁾

양소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임과 놀림을 당하는 희극적인 요소가 『서유기』에는 저팔계가 손오공 등으로부터 속임과 놀림을 당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다른 점이라면 손오공은 변신술 등 초능력을 이용하여 저팔계를 속임으로써 저팔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나 『구운몽』에서는 현실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물성격 외에도 이 두 소설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소설들에 많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언급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위징, 원천강, 이순풍, 이정(위국공), 염왕, 지장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상아, 우임금, 요순, 팽조, 옥황상제, 서왕모, 서시, 적송자, 장자방(장랑), 경하용왕, 남해용왕, 새우·게·물고기 신하와 병사(괴물) 등이다. 구체적으로 등장하나 부차적 인물로 설정된 염왕과 지장보살은 두 소설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비슷한 경력의 예로 『서유기』의 삼장법사도 정과를 이룩한 후에는 서천(천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운몽』의 육관대사도 천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서유기』에 등장 또는 언급 되는 인물 중 『구운몽』의 작중 인물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원천강의 숙부인 원수성, 홍불기의 남편인 위국공 이정, 남해태자 오현의 아버지인 남해용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유기』에 홍불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남편인 이정이 탁탑천왕이란 인물로 등장하며 남해용왕의 아들 오현은 등장하지 않으나 남해용왕 오흠이 등장한다. 『구운몽』에서 홍불기라는 인물은 한번 비유되어 언급되는 정도일 뿐이지만 『구운몽』에는 매우 의미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후에 양소유가 위국공 이정과 마찬가지로 위국공으로 봉해진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30) 임홍빈 역, 『서유기』 제3권, 문학과지성사, 2003, 94~95면.

스스로 자신을 이정과 비교하고 자신의 애첩을 홍불기와 비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원수성은 경하용왕고사와 관련되는 인물로 『구운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원천강은 『서유기』에 아주 간단히 등장하며 『구운몽』에서도 간단히 언급된다. 비록 『구운몽』에서 간단히 언급될 정도의 인물이긴 하지만 『서유기』의 등장인물인 원수성의 조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구운몽』에 등장하는 남해태자(용자) 오현도 『서유기』에 나오는 용왕의 성씨인 오씨를 따르고 있고 바로 『서유기』 등장인물인 남해용왕의 아들이다. 『구운몽』에서 남해용왕은 아들을 도와 동정용왕과 백능과를 협박하는 인물로 언급된 인물이다. 이처럼 두 소설에 등장 또는 언급 되는 인물이 선후 세대 관계라는 점은 『구운몽』과 『서유기』의 밀접한 유사성 뿐 아니라 모종의 연속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유기』가 당대중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구운몽』은 당대중, 당현중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서유기』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천축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많은 나라(외국)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부처와 요괴들이 등장하므로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이색적이어서 환상적인 특징을 강화해주고 있다. 『구운몽』은 한국배경이 아니고 중국배경이어서 인물들의 이름에 중국식 성과 이름이 많이 보이므로 역시 환상소설의 성격을 강화해주고 있다. 성진은 육관대사가 천축에서 데려온 제자들 중의 한명으로 짐작되나 작품에서 생김새는 동양인으로 그려져 있다.

3.3. 지명과 숫자

일부 같거나 비슷한 지명이 두 소설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일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나라를 동일한 공간적 및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어 당나라 시대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만 『서유기』는 당대중 시대, 『구운몽』은 당대중, 당현중 이후의 시대(840년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 선후관계에 있어 그 이전 고사, 소설들과 유사성을 유지하기에 좋은 설정을 해놓은 셈이다.

지명의 대표적인 예로 『구운몽』의 盤蛇谷과 『서유기』의 蛇盤山鷹愁澗의 유사성을 들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이 두 지명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도 비슷한 면이 보인다.

『구운몽』에서 양소유는 바로 반사곡에서 용녀를 만나게 되며 『서유기』에서도 당승과 손오공은 蛇盤山鷹愁澗에서 서해용왕 오윤의 아들 옥룡삼태자를 만난다. 『구운몽』에서 용녀가 백룡이어서 그곳의 호수를 백룡담이라고 불렀으며 『서유기』의 옥룡삼태자도 백룡이었다. 『서유기』에서 서해용왕 오윤의 이 아들은 이후에 현장법사가 타는 백마가 되어 함께 서천으로 가게 된다. 이 두 곳 모두 산이 높고 길이 험하며 만난 물은 한기가 서리고 푸르렀으며 두 곳 지명에서 하나는 “盤蛇”, 다른 하나는 “蛇盤”으로 글자 순서만 바뀐 정도로 그 용어가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삼장법사는 교동수단으로서의 용마를 얻게 되며 양소유는 신마를 타는 경험과 여덟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는 경험을 하게 된다.

行軍多日，到一泰山之底，路甚狹，纔容一馬之過。如是行數百里，才得乍廣之地，造營休三軍。軍士久勞之餘，山下有一青潭，進而爭飲水，渾身青而不能語，寒戰欲死。尚書大驚，親往水邊而觀水，深碧不測其內，寒氣凜凜，尚書最疑而思曰“此必裊烟所言，盤蛇谷也。”

(여러날 행군하여 한 큰 산 밑에 이르니, 길이 심히 좁아 겨우 말 한 필이 지나갈 수 있더라. 이처럼 수백 리를 가서 비로소 너른 곳을 얻어 영채를 만 들게 하더니, 군사들이 오래 수고하였는지라 산 밑에 맑은 못이 있음을 보고 들어가 다투어 물 먹더니 온몸이 푸르게 되고 떨며 죽어려 하거늘, 상서가 크게 놀라 친히 물가에 가보니 깊고 푸르러 그 속을 측량치 못하겠고 냉기가 치솟거늘, 상서가 의심하다가 생각이 나되, ‘이는 필연 요연이 이르던 반사곡이로다.’) (『구운몽』)

去的是些懸崖峭壁崎嶇路，迭嶺層巒險峻山。三藏在馬上，遙聞呼喚喇水聲聒耳，回頭叫：“悟空，是那裏水響？”行者道：“我記得此處叫做蛇盤山鷹愁澗，想必是澗裏水響。”說不了，馬到澗邊，三藏勒韁觀看，但見，涓涓寒脈穿

雲過，湛湛清波映日紅。聲搖夜雨聞幽穀，彩發朝霞眩太空。³¹⁾

(밭길이 닿는 곳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낭떠러지와 깎아지른 절벽의 기구한 도로요, 첩첩 쌓인 고갯마루와 험산준령뿐이다. 말 위에서 삼장은 어디선가 팔팔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럽게 물결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물었다. “오공아, 이게 어디서 나는 물소리냐?” 손행자는 무심결에 대답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사반산 응수간에서 나는 물소리인 듯싶습니다. 그 계곡을 감돌고 흐르는 강물이 있지요.” 손행자의 대답이 미처 그치지도 않았는데, 백마는 벌써 강기슭에 다다랐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계곡이 아찔한데, 도도하게 일렁거리는 강물의 기세가 실로 엄청나다.

찰찰찰 흘러내리는 물결 차가운 맥이 되어 구름을 꿰뚫고 맑다 못해 질푸른 파도에 햇볕을 되비쳐 붉은데, 차가운 밤비 소리 요란해 그윽한 골짜기 뒤 흔들고, 눈부신 아침노을 찬란한 광채가 허공을 어지럽힌다.

(『서유기』 제15회)³²⁾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소설은 환상소설이라는 점에서 이국지향적인 특성을 질게 나타내고 있다. 『서유기』에 나타나는 나라명이나 지명 등 표현에는 기괴한 이름이 많으며 이국적인 색채가 짙다. 두 소설에 모두 언급되는 지명으로는 요지, 삼청궁, 서역, 천축, 장안, 화청궁, 대완, 남악, 광한궁, 곤륜산, 무산, 풍도지옥, 삼라전, 동화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서유기』에는 불교나 도교의 사상을 상징하는 숫자들과 관련된 용어들인 구구팔십일년, 구색연화좌 등이 등장한다. 이는 도교와 불교적인 사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면에서 『구운몽』의 “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숫자에 대한 설정에서 작가의 도교와 불교 사상을 엿볼 수 있다.

31) 오승은 저, 앞의 책, 340~341면.

32) 임흥빈 역, 『서유기』 제2권, 문학과학지성사, 2003, 164~165면.

4. 결론

본고에서는 화소, 작중인물, 지명과 숫자 등으로 나누어 『구운몽』과 『서유기』 두 작품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서유기』란 중국고전작품이 700년 동안 『서유기』 관련 텍스트들을 수용해 형성되고 창작되었다면 『구운몽』 또한 동양문화와 동양고전작품들의 영향관계 속에서 창작되고 여러 판본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구운몽』과 『서유기』는 동일한 한자문화권이라는 배경 하에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유사성은 『구운몽』의 『서유기』에 대한 부분적인 수용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이 보여주는 유사성은 반드시 이 두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과도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많은 동양의 고전작품들은 비슷한 譚降 화소와 神仙四散 설화, 그리고 입몽·각몽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구운몽』은 『서유기』의 일부 특징들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서유기』가 아닌 다른 소설 텍스트들에 대한 수용도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용이란 것은 수동적이고 모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특징에 맞는 능란하게 취사선택하는 자연스러운 수용이며 독창적인 창작을 전제로 한 공통적인 동양문화에 대한 공유와 전승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구운몽』의 동양 고전문학에서의 독특한 위상을 수립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구운몽』이 한국의 독자들뿐 아니라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한 기타 나라들의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만중 저, 정병설 소장, 『구운몽』, 1687.
김만중 저, 이가원 교주, 『구운몽』, 덕기출판사, 1955.
민관동, 『중국 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아세아문화사, 2007.
오승은, 『서유기』(세덕당본)영인본, 『고본소설집성』편집위원회 편, 『고본소설집성』, 상해고적출판사, 1990.
이재수, 『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1969.
정규복, 『구운몽연구』, 고려대출판부, 1974.
정규복,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출판부, 1987.
정규복,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국학자료원, 2001.
정병설, 『구운몽도』, 문학동네, 2010.
하석장, 『서유기-幻想世界中的文化與人生』, 운남인민출판사, 1999.

2. 논문

- 이상익, 「충격과 조화: 한중소설의 비교연구(기4)-서유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2, 369~424면.
전성운, 「비교 문학적 측면에서의 구운몽 창작과 소설사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3집, 2001, 63~89면.
정규복, 「幻夢說話考」,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219~232면.
정규복, 「구운몽의 비교문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6, 1970, 17~49면.
정규복, 「西遊記와 한국고소설」,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109~151면.
정규복, 「九雲夢의 東아시아에서의 位相」, 『모산학보』6, 동아인문학회, 1994, 21~30면.
최준하, 「九雲夢對中國小說之影響研究(其二)」, 『우리말글』 대구어문논총 통권 14호, 우리말글학회, 1996, 449~466면.
현창하, 「구운몽연구」, 『현대문학』 8-5, 현대문학사, 1962, 175~197면.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nd <*Journey to the West*>

Cui Youxue

This paper analyz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nd <*Journey to the West*> from the aspects of motif, characters, place name, number with methodology of comparative literature, as well as probes into influence relationships of two works.

Wu Cheng'en(1500~1582) and *Kim Man Choong*(1637~1692), they were both trying to escape from irrational reality through fantastic dream. The dreams in two novels share many similarities. And the most obvious sign of receptiveness is the stories relating to dream. The story of dream about cutting dragon of Jinghe river (夢斬涇河龍) is simply referred to in <*The Cloud Dream of the Nine*> , which is narrated in detail in <*Journey to the West*>, it shows that *Kim Man Choong* is using the same related motif of <*Journey to the West*>.

The motifs of the immortal scattered and rebirth in two works are sharing similarities, and the structures of narrating are both the structure of journey-type novels. Further more, the two works are sharing similarities in the motifs of become number one scholar and couple alliance.

The motif of immortality in two works is similar. The lead characters in two novels are longing to live forever, and there are many immortals who can live forever, the logic about immortality is explained by the point of view from Buddhism, Daoism or Confucianism. Comparing characters of two works, they are sharing the similarities in some aspects, such as personal character and experience.

In two works, there are some the same or similar place names and they both try giving special meanings to some numbers.

<*The Cloud Dream of the Nine*>and <*Journey to the West*> are both under the background of the same Chinese character cultural circle, and sharing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m. Some of the similarities are shown that the receptiveness of <*The Cloud Dream of the Nine*> from <*Journey to the West*>.

Keyword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Journey to the West*>, similarity, compare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
